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미리 본 70인 제자 미가 -복음으로 여는 미가- 미가 5:2, 마태복음 2:4-23

정윤돈 목사님

* **미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 **마2:4-23**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얼더라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이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증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리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벨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영원토록 천국의 복락을 누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을 공허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승리할 신분과 권세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237, 5천 족속을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치유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야망과 목적과 인생의 비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생명 건 현신을 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받을 뿐 아니라 교회와 교단과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면 다 되냐고 하는데, 다 된다. 제 고향에 김일남 목사님이라고 계신다. 그 목사님이 제게 느닷없이 ‘정목사, 나는 고민이 하나 있어’ 하셨다. 성도들이 설교할 때 자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면 된다. 그냥 기도하면 종교인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마가다랴방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램프들이 모일 때 세계 237살리는 역사가 계속되었다.

오늘은 미가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미가는

수백 년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보았다. ‘미가라는 이름은 약칭이다. 히브리 원본의 이름은 ‘미가야후’이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이는 누구냐’라는 의미이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냈을 때, 미가는 수백 년 후에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미리 봤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에브라다야’라고 했다. ‘에브라다’는 많은 유대 땅 가운데 정확히 유대 땅 베들레헴을 의미하고 있다. 1장에서 3장은 유대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성경을 보면 다 서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모습이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로 결론내지 못하고 악하고, 나만 생각하고, 악으로 갚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4장에서 5장의 내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되고 부족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고백만 하면 된다. 진도 안 해도 된다. 나중에는 진도하게 된다. 저는 나의 70현장을 붙잡고 운동하러 간다. 가서 보면 다들 눈빛이 복음 말해달라고 하는 눈빛이다.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되면 진도가 귀찮을 정도로 살릴 사람이 많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 내가 좀 부족해도 된다.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게 진도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즉, 미가서는 유대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은 5장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특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특별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동방박사들이 대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물어보았을 때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들이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찾아 말해준 말씀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헤롯 대왕은 그 어머니마함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다.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냥 도망가자 헤롯 대왕은 두 살 미만의 어린 아이를 다 죽였다. 지지난 주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러 두 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의 해골이 있는 무덤을 발견했다. 그 무덤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었다. 역사적 사실이다.

1. 성경에 나오는 대헤롯과 헤롯 가문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약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다. 헤롯과 헤롯 가문의 후손들은 세상과 세상 권력에 눈이 가려져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육신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의 사람들이다.

(1) 첫 번째 헤롯은 대헤롯 왕이다. ① 그는 ‘이두메’ 족속 즉, 에돔 족속 출신이었다. ② 그는 로마제국을 도와 나중에는 유대 전체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 국가 왕위를 위임받은 사람이었다. ③ 그는 오로지 로마 제국에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유대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을 가장 크게 재건하였다. ④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엄청나게 높은 맛사다 요새에 자신의 궁궐을 지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우나도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가 난공불락의 요새다. ⑤ 또 그는 자신의 생명과 왕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공포증과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⑥ 이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물었던 것이다. ⑦ 그래서 그는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였다. 헤롯은 지혜와 모략이 뛰어나며 건축 전문가에 많은 부인과 자녀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성공자다. 다 갖고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성공자가 아니다. 후대들은 세상적으로 성공도 해야겠지만 성공만 하면 안 된다. 예

수님은 거지로 살다가 구원받은 나사로를 예로 들으셨다.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거지처럼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성공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조금해하지 마라. 당대에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도 마라. 내가 안 되면 후대가 하면 된다. 흔들리지 말고 불신양하지 말고 40년만 잘 믿어라. 잘 믿다가 불신양하면 다시 광야생활로 돌아간다. 조금 믿다가 불신양하는 분들이 많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불신양 한번 하면 10년, 20년 지나간다. 결론을 빨리 내고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세상에 속지 마라. 헤롯 가문은 다 왕이었지만 다 망한 집안이었다. 우리는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로 결론내면 헤롯 가문보다 더 훌륭한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다.

(2)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이다. ① 대헤롯의 아들이라서 ② 아버지 헤롯 사망 후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매 지역의 분봉 왕이 되었다. 마2:22에 아켈레오에 대해서 말한다. 이 사람은 성적으로 매우 악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상소를 해 왕에서 잘랐다. 아켈레오가 왕이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아켈레오가 통치하지 않는 나사렛으로 가게 된다.

(3) 다음은 헤롯 안디바스라는 인물이다. ① 그는 대헤롯의 둘째 아들이었다. ② 갈릴리 지역을 약 33년 동안 다스린 분봉 왕이었다. ③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스몬 왕가 출신인 자기의 형수 헤로디아와 간통했다. ④ 세례 요한에게 비판을 받아 헤로디아의 목을 쳤던 인물이다.

(4) 세 번째 헤롯은 헤롯 아그립마 1세이다. ①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다. ②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인물이다. 헤롯 아그립마 1세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설립되었다.

(5) 다음은 헤롯 아그립마 2세이다. ① 헤롯 아그립마 1세의 아들이라서 ② 그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등장하는 아그립마 왕이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2절을 보겠다. “아그립마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마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③ 그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사탄의 나라를 따르고 말았다. 사도행전 26장 26절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헤롯 아그립마 2세 왕에게 한 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함께 보겠다. ‘왕께서는’, 이 왕이 헤롯 아그립마 2세다.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이 예수님의 탄생, 활동, 부활이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만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헤롯 아그립마 왕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마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니이다. 왜 아그립마 왕에게 선지자를 만나고 물었을까? 아그립마 왕은 분봉 왕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렸으며 제사장을 임명하는 종교활동을 주관했다. 그리고 애독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했다. 때문에 아그립마 왕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세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아그립마도 마찬가지다. ‘아그립마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줘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유대총독)과 버니게(아그립마 1세의 딸)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마가 베스도(유대총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거부하였던 헤롯 가문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다. 그런데 한 특별한 인물이 로마서에 나오는 헤롯의 후손 아리스도볼로라는 왕자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복음을 받고 모든 왕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0절에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이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권력과 무속, 우상, 점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 주실 희망을 미가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하

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다.

2. 미가서에 나오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들에 대하여 찾아보도록 하겠다. 5장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다.

(1) 첫째로 미가서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다시 한 번 미가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다. 성삼위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영접해야 하겠다. 이것이 3.9.3기도의 시작이다.

(2) 미가서 5장 4절에는 138의 약속과 237나라 5천 종족복음화를 약속해 주셨다.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3) 또한 미가서 5장 5절 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평강의 과수밭’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4) 네 번째,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남은 자 램넛들이 누릴 응답과 축복이다. 여러분의 능력과 아무 관계없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겠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게 237나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이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이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사는 세상이 사탄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이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러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사단 박살이다. 이게 미가의 기도다.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넛들이 될 줄 믿는다.

① Covenant. 언약과 복음이다. 그 어떤 권력자와 제국과 사탄이 방해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땅대와 같이 세워질 것이다. 그 역할을 감당할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로 쓰임 받는 미가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 드리겠다.

②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평생의 비전은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울무, 툄, 함정에 빠져있는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려 주는 것 되어야 하겠다.

③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④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이미 약속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문제 앞에서 속지 않고 조금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면 사탄의 정사와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과 제국들과 3단체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⑤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땅대를 세울 나의 70현장과 나의 70나라를 찾아보시기 바란다. 이때 천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과수밭대를 나의 현장과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현장에 세우는 성도들과 후대 램넛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미가서를 통해, 헤롯 가문을 통해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헤롯 가문처럼 세상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언약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